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힘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의
길에서 기억하기를
느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말씀의 길으로
들어 가야 함을 배웁니다.

난 그냥 이 길을 걸어보련다

신 윤 식

소란하고 어지러운
오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등바등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세월의 숲을 나와 보니
이제야 보인다.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을 찾아가며
생각과 마음을 아우르고
남보다 먼저 얻은 부와 명예
이웃보다 높이 오른 자리일지라도
힘으로 여기지 않는 작은 자의 세계가

작은 자끼리의 깊어가는 이야기가
달콤한 숨사탕 되어 혀끝에서 녹아내리니
내 인생 안에 작은 사람의 세계가 있어
나를 가볍게 한다.

작은 사람으로 걸어가는 이 길
그냥 걷기만 해도 좋으니
작은 자라 하여 무시 받는다 해도
난 그냥 이 길을 걸어보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5.15

발행호수 제19권 20호

신 자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기 위해 보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안에는 본인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선택한 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모든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만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증거하고 찬송해야 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와 요구에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요구가 만약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싸워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도 세상의 질서와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은 종교와 신앙을 초월하여 국가의 정책에

주일오전설교
마 22:15-22

세금 문제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선한 삶을 실천하여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짐으로 지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짐으로 여기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들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비유에 등장하는 밭이들과, 포도원의 악한 농부, 그리고 임금의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모두 자신들을 가리고 있음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상의를 했다는 것은 인간은 본연의 양심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헤롯 당원은 유대인으로써 헤롯 왕조를 추종하고 지지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때문에 헤롯 당원은 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으며 당연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당원은 하나님과 민족에 등을 돌린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세금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님께 보냄으로써 그들이 작성한 말의 올무에 예수님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16절)라고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으로 말함으로써 뭔가가 두려워서 답을 회피하지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수작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찬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울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술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17절)**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같은 질문이 전혀 곤란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자가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자도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목사도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질문하는 바리새인의 의도는 뻔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세금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유대인들로부터 반감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함께 동행한 헤롯 당원들로부터 반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 쪽으로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교묘하게 말의 울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바치라 할 것인가 바치지 말라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주일에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하면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고 치지 말라고 하면 결국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이라는 문제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곧 ‘신앙이나 현실이나 라는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도 예수님을 이러한 갈등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는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신앙이나 현실이나 라는 문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금으로 바치던 동전 데나리온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 모습으로 주조되어 있었고,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신적인 아우구스도의 아들, 가이사’ 라는 글씨가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고 묻자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신자가 국민으로써 행해야 할 납세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신자로서 행해야 할 십일조 의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과 십일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의 것이니까? 이처럼 행위를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 역시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며 행동함으로써 삶이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원론으로 나뉘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에서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

신의 신자 됨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행함이 현실에서는 불이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현실이라는 이원론적 구조에서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을 겪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신자로써 신자 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즉 데나리온을 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자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가이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금을 거둬서 국가를 유지하려는 가이사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은 세금을 바치고 바치지 않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세금을 거둬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만약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신자라는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이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 가능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세상의 것을 동원하여 나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된 신자입니다.

신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신자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자유가 있는 신자입니까?

자유를 말할 때 대개 생각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모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사회의 질서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자유라면 굳이 자유를 위해 성령이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의 체제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체제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가능한 자유는 행동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동의 자유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순응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정한 규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유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행동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권이 벗겨지리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유라는 말을 하고 다시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권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일오후설교

고후 3:12-18

성령과 자유

(성령17강 5.1일 설교)

이것을 보면 자유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얼굴의 수건 이야기는 모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전한 후에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로 추앙받고 있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지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신자를 잡아 가두고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자면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정통적인 사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권위를 인정받은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는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도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종이에 기록한 추천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사람이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쓴 추천서가 있다고 합니다. 종이에 쓴 추천서는 돌 판에 쓴 것이고 영으로 쓴 추천서는 마음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돌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종이에 쓴 추천서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사도에게 받은 종이에 쓴 추천서를 보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마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신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복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 다. 이러한 믿음의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자연히 행하는 것이었고 지키는 것이었으며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에 여전히 매어 있던 당시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가 발행한 추천서를 신뢰함으로써 추천서가 없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은 보이지만 마음판에 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이 추천서를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이 말은 추천서가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비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종이에 쓴 추천서를 신뢰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매인 비신앙적인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종이에 쓴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들이야말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자로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광채를 통해서 모세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돌판의 율법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임을 가리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광채가 영원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광채에 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보이는 것에 매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너희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상태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쓴 추천서 하나로 사도성을 평가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계시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에게 자유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이러한 자유자는 성령이 함께 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는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신자 됨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뉘그러 행하고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함과 실천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씀하셨고 짐을 위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짐은 무거운 짐이 없는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성령이 함께 하는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 나오고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아드돗이라는 나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방 나라가 언급되면서 동일하게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라는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자 외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뜻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런 기준으로 구분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에 대한 구원이 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라 이름하기 위한 명분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의미는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매우 지혜롭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혜는 3절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는 것이고,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아 놓는 것입니다.

요새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은과 금 또한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으로 여김 받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지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고, 힘이 되는 은과 금을 확보하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고, 따라서 누구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가 바로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이방인과 다른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길에 대해서는 9절의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 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나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왕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요일설교

속 9:1-17

겸손의 왕

(11장 4.27일 설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고 기다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짓누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국가를 세울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유다가 고대하는 힘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힘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그러한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해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동안 소망과 희망으로 붙들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며 기다려온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유대를 향하여 왕이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왕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오심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으로, 또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한 길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의 길입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요새를 쌓고 은을 티끌처럼 금을 진흙처럼 쌓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 여기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뻐하고 환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힘없는 나약한 길이든 죽는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예수님이 홀로 가시고 대신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세상의 부로 채워준다면 누구하나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혜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새를 쌓고 은과 금을 쌓아 놓음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신뢰하는 것이 이방인의 지혜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회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고 말합니다.

병거의 말과 전쟁하는 활이 끊어진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힘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방인이라면 누구도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속한다면 결국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활을 끊으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요새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를 강한자로 세워주시는 요새가 아닙니다.

힘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힘을 가지면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힘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힘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나를 살리는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힘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에 영원히 빛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신자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자로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당연히 힘과는 상관없는 모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힘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33(시72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58장

성 경 : 마 22:15-22

말 씬 : 세금 문제(13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2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7장

기 도 : 최두임 집사

찬 송 : 490장

성 경 : 눅 12:13-21

말 씬 : 생명을 향하여(성령 1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92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14강)

■ 교회소식 ■

1. 예배당의 피아노 교체를 위해 6월말까지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된 액수대로 신품 또는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2. 1층 유아실은 유아가 있는 가정의 한분만 이용하시고, 다른 분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예배 후에 전 교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김정덕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⑥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기 기독교의 유무상통, 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던 삶의 형태를 4:32-35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강조한다. 이것을 보면 누가는 그리스도인이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초기 기독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입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가는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야 할 교회됨의 모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자기 사유 재산이 없었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교회됨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지향하는 여러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공동체도 초기 기독교와 같은 유무상통의 모습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사유 재산이 없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말 그대로 공평과 평등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왜 실현할 수 없을까? 사유 재산이 없이 함께 일하고 소득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왜 실현할 수 없을까? 그것은 지금의 인간이 현실의 삶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자기 생존이라는 본능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다만 이상의 희망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을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이 실천한 삶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실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유무상통의 삶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유무상통의 삶이 계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한 예가 구제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다. 과부들은 자기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어 놓는 사람들 덕분에 쓸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자신이 구제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된 것이다. 쓸 것을 받지 못하면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받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불평을 하게 한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 안에 있는 그들에게 사유 재산이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현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자기 현실로 바라보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림이 지연되면서 결국 그들도 생존의 문제를 자기 현실로 바라보게 되고, 자연히 유무상통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일로 여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현실을 살아간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삶을 실천할 수 없는 이유다.